

석유이야기

그 돌을 모아 짜 기름이 나온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.

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되자 적어도 이삼십년 동안은 석유 걱정이 없었다. 그 민족 상잔의 시기에 도 그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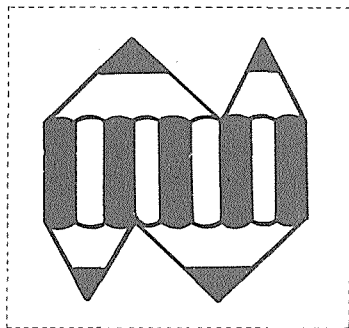
우리는 60년대의 호황(好況)을 자주 입에 올린다.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경제면에서는 그랬다. 새마을 운동을 하고 우리의 농촌도 차츰 호통불이 사라져 호통과 등잔은 제법 값나가는 골동품이 되었다.

석유파동이라는 생소한 말이 등장하더니 온 국민이 초긴장 상태가 된 일이 기억난다.

그때 우리는 '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'라고 입을 모았다. 도무지 자랑스러울 것 없는 이 말이 주는 뜻을 우리는 가슴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.

포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박대통령이 공언했을 때 우리의 가슴은 한 없이 설레었다. 일본과 함께 대륙봉을 탐사한다는 말에는 어깨가 떡 벌여졌다.

석유가 나오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은 물론이지만 무슨 국장이나 과장쯤 되는 사람이 와도 아부 아침



해야 했던 일이 가슴아파서였다. 누가 봐도 우리 황인종보다 못생긴 까만 얼굴들이 석유를 가졌다고 으시대던 꼴이란 눈 뜨고 보기 싫지만 봐야 했었다.

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인 채 있다. 포항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이고, 대륙봉에서도 시추에 돈만 낭비해 왔다.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걱정하는 외국 빛도 따져보면 석유를 들여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.

나는 무식해서 석유산업과 관계되는 기업이나 생산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.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의식주는 물론이고 모든 삶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.

석유국가의 장관들이 모이면 가슴

이 내려 앉는다. 야마니는 가히 세계의 대통령인양 우러러 받들어야 했다. 다행히 요즘은 유가(油價)가 내려 한 숨 돌렸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야 처분만 바라고 오르지 않기를 염원할 뿐이다.

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미래학자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이 <인류의 위기>라는 책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류 생존의 위기는 인구문제, 식량문제, 전쟁문제, 공해문제, 지하자원 문제라고 밝혔다. 이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얽혀 하나도 해결할 열쇠가 없다고 한다.

지하자원이란 파내면 그뿐 무슨 생물처럼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다. 거리에 내달는 차량을 보면 내 머리에는 자주 등잔과 아주까리 기름이 떠오른다.

따르릉...전화가 왔다. 시를 쓰는 친구의 전화다. 원고를 쓰느냐고 묻는다. 팔자에 없는 기름 이야기를 쓴다고 했더니 당장 나오라고 한다. 녹슨 머리로 뭘 쓰겠느냐고 비꼰다. 목구멍에 기름을 처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투다.

웁은 소리다. 이쯤 붓을 놓고 오랫동안 목구멍에 기름이나 처볼까.

